

지역 소식통

'사이버 고창군민제도'

시행 관계인구 10만명 달성

고창군이 '사이버 고창군민' 제도로 2025년까지 관계인구 10만명 달성 목표를 세웠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올해 고창사랑기부제 등을 추진해 오면서 현재까지(1월말 기준) 8만여 명의 관계인구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해 11월 도시민과 출향인을 대상으로 도농 교류 활성화와 관계인구 증대를 위해 '고창군 사이버군민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들었다

관계인구란 '이주에 의한 정주인구나 관광을 통한 교류인구'가 아니고 '특정한 지역이나 지역주민들과 지속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라고 광범위하게 정의하고 있다

군은 '사이버 고창군민'이 고창의 고정 관광객으로 고창 활력 증진의 힘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4월부터 '사이버 고창군민 홈페이지'를 운영해 사이버 고창군민증을 발행해주고, 고창의 생생한 소식을 사이버군민들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고창=김영식 기자

정읍시, 쌀 수급 안정

'전략 작물 직불제' 시행

정읍시가 논을 활용·관리하는 농업인의 소득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해 전략 작물 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

전략 작물 직불제는 발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발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정책이다. 쌀에 편중된 과잉 생산 구조를 바로잡고 수입의 의존도가 높은 밀과 콩 재배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다

전략 작물 직불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 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에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 직불금이다

따라서 전략 작물 직불금은 겨울철에 식량작물이나 조사료를 재배하면 해당 50만원, 여름철 콩·기무쌀은 100만원, 조사료는 430만원을 지급한다

/정읍=김대환기자

고창군 청년협의체 발대식

만45세 이하 청년 30명구성... 주요정책에 청년 의견 반영 "함께 해결방안 모색할 것"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3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 28일 오후 고창군청 상황실에서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 발대식을 갖고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청년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체계를 구축했다

고창군 청년정책협의체는 청년정책 전반에 대한 정책개발과 전달 등에 있어 지역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공식 창구다. 군은 지난달 공개모집을 통해 직장인, 자영업자, 대학생 등 만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30명으로 협의체를 구성했다

청년위원들은 2년 동안 일자리 경제, 교육, 문화, 복지,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년을 위한 아이디어를 도출하는 역할을 맡게된다

군에서는 협의체가 주도적으로 청년정책 관련 의제 발굴하고 제안, 모니터링



민선 8기 심덕섭 고창군수의 공약사항 중 하나인 '청년정책 거버넌스 구축'이 본격 가동에 들어갔다

터링 홍보 활동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된 정책들은 고창군 청년 기본 조례에 따라 각 부서의 검토와 시행계획 수립,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시행할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의 미래를

이끌고 갈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겠다"면서 "청년정책은 구상부터 실행까지 청년의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 협의체가 청년의 문제를 청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권익현 부안군수, '창신비상' 군민소통대화 진행

2월 6~15일 13개 읍면 방문... 군정비전 공유·군민의견 청취

권익현 부안군수가 2023년 계묘년을 맞아 오는 2월 6일 부안읍을 시작으로 '창신비상(創新飛翔)' 군민소통대화를 진행한다



실 있게 진행하면서도 부안 대도약 시대 개막을 위한 군정비전 공유를 통해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적극행정을 구현하고 군민과의 격의 없는 소통대화로 군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주민들의 삶의 현장 등 민생탐방으로 군민의 생생한 의견을 청취해 군정에 반영할 방침이다

올해 군민소통대화는 오는 2월 6일 부안읍·주산면, 7일 동진면, 8일 행

안·진서면, 9일 보안면, 10일 변산·계화면, 13일 하서·상서면, 14일 백산·출포면, 15일 위도면 순으로 실시된다

권익현 부안군수는 "이번 군민소통대화를 통해 군정에 대한 다양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해 부안 대도약 시대를 반드시 열겠다"며 "군민의 시선과 입장에서 생각하고 군민의 뜻을 모아 미래로 세계로 공동하는 부안 실현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안=김석진 기자

이학수 정읍시장, 간부회의서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 당부

이학수 시장이 30일 영상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 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지방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부서별 자체 신속 집행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소요 기간을 단축하는 등 집행을 앞당기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펼쳐달라"고 말했다

특히, 조기 집행과 관련해 철저한 사전 준비와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의 내실화를 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지방보조금의 지속적 확대와 보조금 관리체계 강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지방보조금이 건전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달라진 보조금 재정지침과 관리기준, 보조금 지원 절차 등 실무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해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시장은 "부서 간 칸막이 행정을 지양하고, '협업 행정'

을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관행적인 업무 실행을 개선하고 부서 간 소통하는 유연한 조직문화를 만들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장은 고창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동참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고창사랑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도 거듭 당부했다

/정읍=김대환기자



이학수 시장이 고창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동참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고창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에 참여, 자매결연 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기부문화 확산 위해 최선을"

이학수 정읍시장, 고창사랑기부제 참여로 자매도시 응원

이학수 시장이 고창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안착과 기부 동참 분위기를 확산을 위해 고창사랑기부제 동참 캠페인에 참여, 자매결연 도시에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난 27일 NH농협은행 정읍시청지점을 방문해 정읍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8개 도시(서울특별시 종로구, 강서구, 성북구, 강동구, 경기도 남양주시, 강원도 속초시, 경상남도 사천시, 대구광역시 수성구)에 고창사랑 기부금을 전달했다

이 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에 도움이 될 고창사랑기부제에 참여하게 돼 매우 뜻깊고 기쁘다"면서 "고창사랑기부제의 성공적인 정착과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상생 기부로 자매결연 도시와의 교류를 넓히고 상호 간 발전을 응원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기부자는 10만 원까지는 전액, 10만 원 초과분은 16.5%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다. 또한, 기부한 금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농·특산물 등을 담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기부는 고창사랑농음에 접속하거나 전국 NH농협은행에 방문해 참여할 수 있다. 정읍에 기부하면 고창의 사랑이 담백 담긴 커피와 생차차, 한우 등 17개 품목 62개의 상품을 담례품으로 받을 수 있다

시는 시민과 직원들에게 자매도시의 고창사랑기부제를 소개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등 다양한 홍보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읍=김대환기자

정읍시, 취약계층 가구 주거환경 개선 '앞장'

정읍시가 노후·불량 주택을 대상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시는 소외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주거시설의 안전을 점검하고 대대적인 보수 사업을 추진한다

'주거시설 안전점검 및 보수 지원사업'은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여건 등으로 제때 보수를 하지 못해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외 계층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사업 추진을 위해 시는 올해 총 1억 1,500여만 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를

재원으로 지역 내 저소득층 414가구에 대해 온수매트를 지원하고, 전기·가스 시설, 도배·장판 교체 등의 시설을 점검 보수할 계획이다

점검·보수는 정읍시청 건축과 기술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샘골 민원봉사대'가 봉사대는 현재 읍·면·동장 지 조사 사업량 조사를 거쳐 2월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화재 위험이 감소 되고 냉난방비가 절약되는 등 취약계층 가구의 생활 여건과 안전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읍=김대환기자



지구상에서 가장 빨리 뜨거워지고 있는 곳 '북극'
우리집을 지켜주세요

전문가에 따르면 자동차와 공장에서 나오는 탄소 배출량 증가로 인한 지구 온난화로 빙하들은 점점 녹고 있으며, 이는 지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해양 얼음의 손실은 지구가 태양 광선을 효율적으로 반사하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결국 지구 온도의 상승을 초래할 것이기 때문이다.

전주매일 지구온난화 캠페인